

UABC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식품영양학과	이름	박정만 XX
참가 대학	순천향대학교	수강한 수준	Basic반(Anyher Aguilar)
프로그램 명	UABC Spanish Summer Camp 2022		

2. UABC 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Week (1)	
수업 내용	<p>1) 수업 내용 알파벳과, 숫자와 시간, 발음, 악센트, 기본동사, 요일과 월, 여행용어, 학교 소개 등에 대해 학습하였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좋았으나, 회화인 기본 인사, 감사표현 등을 직접 해보기보다는 영어 위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점은 아쉬웠다.</p> <p>2) 수업 방법 크게 구글 미팅으로 이루어졌고, 같은 학교의 안예원 학생과 나, 선생님까지 2:1로 수업을 진행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직접 중간에 질문이 있다고 해야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지만, 소규모로 이루어져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곧잘 적응해서 질문하였다. 알파벳이나 단어 위주의 수업은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익혔는데 발음을 헛갈려 했던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p> <p>3) 과제 과제는 간단하게 매일 배우는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학습지를 구글 공동 드라이브에 올리는 방식이었다. 첫 주에는 과제가 많지 않았고, 대표적으로는 나에 대한 소개를 발표하는 것이 있었다. 악센트에 대한 수업 내용이 조금 헛갈렸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찾아보고 같이 듣는 학생과 공유하였는데 도움이 되었다.</p> <p>4) 평가 매주 금요일에는 각 주에 했던 내용을 평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금요일 때문이라도 평소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평가 시험지를 구글 공동드라이브에 올리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메일로 꼼꼼히 보내줘서 그 부분도 좋았다.</p>

Week (2)	
수업 내용	<p>1) 수업 내용 국가, 색, 취미, 직업 등으로 사람에 대해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으며, 정관사와 부정관사, 전치사 등의 문법표현에 대해 학습하였다. 아무래도 문법은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갔지만, 직접 학습지를 수업시간에 풀다 보니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p> <p>2) 수업 방법 많이 못 따라오는 부분(빠른 스페인어 영상 학습자료 등) 선생님이 제외해주시고 수업시간에 활동지를 같이 해보는 시간이 많아서 시간 내에 모르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 좋았다.</p> <p>3) 과제 첫 주차에 비해 과제가 많았다. 중간에 선생님이 인터넷이 안되어서 수업을 하루 진행 못한 날 특히 과제가 많았지만 크게 어렵진 않았고, 같은 내용에도 여러 표현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p> <p>4) 평가 지난주와 비슷하게 이루어졌고, 유형은 조금 다르고 다양하게 이뤄졌다.</p>
Week (3)	
수업 내용	<p>1) 수업 내용 옷과 음식, 지역, 음악 등 문화에 대해 학습하였으며, 현재진행형과 소유격 등의 문법 표현에 대해 학습하였다. 실질적으로 멕시코의 문화를 알게 되고, 한국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p> <p>2) 수업 방법 활동지를 같이 풀어보던 지난주와는 달리 각자 충분히 풀어본 뒤에 답을 맞춰보았다. 또, 발표나 소통 위주로 다양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다.</p> <p>3) 과제 2주차와 비슷한 양이었고, 복습 위주의 활동지였기 때문에 PPT 발표를 제외하고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p> <p>4) 평가 역시, 지난주와 비슷하게 이루어졌고, 유형은 조금 다르고 다양하게 이뤄졌으며 마지막 주인 만큼 평가 시험은 목요일, 발표 평가는 금요일에 이뤄졌다. 금요일에는 모든 참여자(100여명)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였다. 진행마져 스페인어로 이루어져서 이해하기엔 어려웠다.</p>
프로그램 운영	<p>크게 특별한 것은 없었고, 학습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수업이 진행되었다. 구글에 미리 학습 자료나 구글 미팅 링크가 올라와있어서 학습에 참여하기 편했다.</p> <p>원래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AM 12:00 ~ AM 2:00 여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는데 선생님의 배려로 2시간 당겨 운영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p>

3. 프로그램 시작 전 준비사항

프로그램 시작 전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무엇보다도 인터넷 연결, 마이크 연결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와 연결이 되어야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성 상 반의 인원 중 누구라도 연결이 잘 되어있지 않다면 매끄러운 수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역시도 마이크 연결이 한 두 번 끊기곤 했는데 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접속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줌이 아닌 구글 미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익숙해지고 연결에 차질이 없게끔 예행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 학습 자료는 미리 다운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구글 미팅 중에 다운받는 것이 매우 느리다는 이유도 있지만, 배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다. 초반에는,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보다 내가 아는 것이 없다 보니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친구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찝찝했다. 그러나, 수업 이후에 혼자 해결하는 것은 시간도 걸리지만 내가 어떤 것이 어려웠는지 까먹기 일쑤이다. 질문은 영어로 주고 받지만, 선생님도 나도 원어민급으로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간단히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면 분명히 더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같이 학습하는 친구에게도 복습할 기회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 본인 소감 및 평가

어학연수를 다녀왔을 때 멕시코인 룸메이트와 지내기도 하였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 해보고 싶어서 막연히 스페인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를 배울 때도 많은 시간을 원어민과 외국 교재를 활용해서 학습하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스페인어 캠프 역시 그런 점에서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3주라는 기간이 언어를 학습하기에 짧은 시간이고 기초부터 학습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프로그램을 통해 비약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하긴 어렵지만,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데는 분명한 도움이 되었다. 특히, 평가나 소통을 위해서 스페인어 학습 어플을 병행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꾸준히 습관처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그램이 나의 스페인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운이 좋게도, 프로그램 도중에 YP 합격이라는 새로운 기회도 찾아와서 스페인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언어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 같다. 진로에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경험이였겠지만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나의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비록, 스페인어도 영어도 능통하지 않아서 조금은 아쉽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여 차후에 여행이나 출장 등을 갔을 때 좋은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

